



게살 비빔밥



꽃게살 비빔밥 김



꽃게살

꽃게 살 만 ‘썩’ 니들이 게 맛을 알아?

목포 장터식당

언제 그랬냐는 듯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다. 쾌청한 하늘에 실랑실랑 부는 바람. 어디든 떠나고 싶어진다. 보성에서 장흥을 넘어 목포로 갔다. 북항으로 가서 국내 최장 길이의 목포해상케이블카에 몸을 실었다. 케이블에서 내려다보이는 다도해의 풍경, 도심, 유달산의 기암괴석 등은 감탄이 절로 나온다. 맛의 도시 목포에 왔다면 한 끼 정도는 꼭 먹고 가야 한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 금어기를 넘기면서, 두어 달 동안 살을 통통하게 채운 수산물들이 진가를 발휘할 때다. 가을이면 수꽃게 절이다. 목포 9미중 하나인 꽃게 무침을 맛보기 위해 장터식당을 찾았다.

수년 전 목포에 들러 먹어본 음식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꽃게살 비빔밥’이었다. 가끔 한 번씩 떠올랐다. 지금이야 게살만 발라서 파는 식당이나 온라인 소핑몰이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흔하지 않아서 게살만 썩 발라서 내어주는 이 식당이 신박한 맛집처럼 느껴졌다. 양념도

얼마나 맛있던지 밥 2공기는 뚝딱 해치웠던 기억이 떠올라 다시 찾았다. 목포에서 알아주는 맛집답게 식당 안은 북적였다.

장터식당의 시작은 지금과 같은 식당의 개념이 아니었다고 한다. 부둣가 주변에서 막걸리를 파는 주점으로 시작했다. 이때 술안주로 나오던 메뉴 중 하나가 즉석 꽃게 무침이었다.

미리 손질해둔 꽃게와 양념을 손님이 원할 때마다 즉석에서 무쳐 손님상에 낸 것에서부터 시작했다.

술안주에 밥을 비벼 먹기 시작한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꽃게 무침 전문 식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장터식당은 꽃게 무침, 꽃게탕, 꽃게살 등 꽃게를 이용한 음식들이 주 메뉴다. 목포의 특산물인 준치회 무침도 별미로 내놓고 있다.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메뉴는 꽃게 무침이다. 기본양념이 같아서 취향에 따라 겉대기가 그대로 있는 꽃게 무침, 살만 따로 발라낸 꽃게살 중 선택하면 된다.

이가 불편한 노인들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꽃게살은 밥을 쓱쓱 비벼 먹으면 한 그릇은 게는 감추듯 사라진다.

새빨간 비주얼의 꽃게살. 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약간 매콤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감돈다.

공깃밥을 시키면 참기름이 뿌려진 밥이 대접에 나온

부둣가 막걸리 주점 안주에서 탄생
봄철 잡아올린 꽃게 급랭시켜 ‘신선’
새빨간 비주얼 밥 한공기 ‘뚝딱’
달콤·고소함 가득...국내산 재료 고집



상차림.

다. 콩나물무침이나 나물 등 기본 반찬을 넣고 비벼 먹어도 좋다.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은 밥을 게살에 비벼 김에 싸 먹으면 환상의 궁합이다.

바삭한 김에 싸서 한 입 넣으면 입안에 꽃게 향이 가득 퍼지고 씹으면 참기름의 고소한 맛이 따라오는데 양념의 달달함과 게살 특유의 단맛이 더해져 감칠맛은 배가 된다. 이처럼 게살을 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싱싱하기 때문이다.

이 식당은 진도와 신안 두 지역의 꽃게를 살아 있는 상태로 매입해 급랭시켜 사용한다고 한다. 꽃게는 특성상 봄철에 많이 잡히는데 수급을 잘 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양념의 맛을 좌우하는 고춧가루 선정도 까다롭다. 무조건 국내산을 고집한다.

마른 고추를 간 다음 간장, 마늘, 생강, 참기름, 깨를 넣고 만든 무침 양념은 한꺼번에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만들어 써야 맛이 더욱 좋다.

장터식당의 꽃게 무침의 맛과 매력은 전라남도가 지정하는 별미 음식 1호로 선정되는 영예도 입었다.

오는 10월 목포문학박람회도 열린다고 하니 목포에 들러서 전라도의 맛과 멋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이주연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